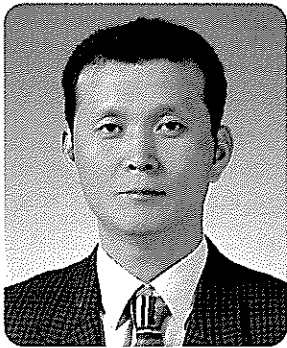




Korean Dental Association

전남치대 벵글라데시 언청이수술 의료봉사

전남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오희균 교수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오희균 교수와 전공의 황웅 선생, 신종화 치의학과 4년, 이정아 치의학과 4년 등 14명의 의료봉사단이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벵글라데시에서 언청이 환자들에 대한 무료 수술과 치과 의료봉사를 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벵글라데시의 다카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꼬람뿔라병원에서 10명의 언청이 수술 등 12명에게 무료 수술을 해주고 또 50여명의 환자에게 발치, 치주치료, 아말감 충전 및 신경치료 등의 치과의료봉사를 시행하고 귀국하였다.

오희균 교수는 "벵글라데시의 언청이 환자들은 의료혜택을 거의 못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청이 수술을 대부분 생후 3개월 전후에 시행해 주는데 이번에 수술한 환자들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이었다. 이는 청소년기까지도 언청이 수술에 대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곳에서 준비해 간 수술 재료가 부족하였고 봉사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언청이 수술을 받기 위해 몇 일 동안에 걸쳐 힘들게 찾아온 환자들과 가족

들을 돌려보내야 할 때는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정기적인 의료봉사가 절실함을 느꼈다. 그 곳 병원 관계자들은 내년에도 또 시술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적으로 의료봉사를 시행할 생각이다" 라고 하였다. 또 오 교수는 "벵글라데시 주민들의 구강위생 상태도 상당히 심각하였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과치료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번 진료 기간 동안에 치과치료에 대한 홍보를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어 귀국하는 날 늦게까지 환자를 보느라 모두들 힘들었다. 치료를 해야 할 환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환자들만 치료하고 돌아와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부터는 보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좀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